

잉여인간(剩餘人間)

나 운영

자유당 시절 어느 높은 분이 남이 써준 강연 원고를 읽어내려가다가 나재민이니, 문예복흥이라고 해서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다. 이囉자와 나囉자가 비슷하고 「부」자와 「복」자는 같기 때문에 그만 한자에 대한 무식이 폭로된 것이다. 나는 국어학자가 아니어서인지 모르나 어쨌든 한글 전용은 반대이다. 부부夫婦, 매매賈賈, 패자霸者, 敗者 등은 정반대의 뜻인데도 발음이 같고, 여권이란 말이 여권與圈·女權·旅券 중 무엇을 뜻하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여담은 그만하고 잉여인간剩餘人間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잉여인간이란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란 뜻이다.

지하철을 타보면 홍수처럼 인파가 쏟아져 나온다. 시장엘 가면 발이 밟힐 지경이다. 나는 이런 인파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무엇을 먹고살며, 무엇을 하고 살아가나?」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으로 불어나는 인구가 제각기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나 「어떻게 사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사느냐?」가 문제이다.

인신매매로 먹고사는 사람, 남의 목숨과 재산을 강제로 뺏는 사람, 주지육림酒池肉林 속에서 취생몽사醉生夢死하는 사람, 마약 중독자 같은 인간쓰레기를 비롯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해 허송세월하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노인과 병약자,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허덕이는 사람 등등 — 이 갖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할 일이 있는 사람」과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나눈다면 결국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잉여인간에 속하고, 반대로 할 일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옳지 않은 일, 악한 일,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나라, 이 사회에 필요치 않은 — 없어야 할 사람이니 이 또한 잉여인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잉여인간이 생기는 원인은 가족계획을 하지 못한 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의 도시집중에 있다고 나는 본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서울로 모여드니 고층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소용이 없고, 도시에서는 잉여인간의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기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가 잉여인간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겠다.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 아니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한다.

우리나라를 위한 일, 내 직장과 내 가정을 위한 일이라면 다소 힘이 들더라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차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을 볼 때마다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사는지? — What · How · Why는 비단 학문 연구 방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Why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했던 것이 아닐까….

흔히 견배를 할 때 <개나발>하는 것처럼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자. 언제 어디서나 잉여인간일랑 절대로 되지 말자!!

<월간잡지 태평양 설록차, 1989. 4>